

양양의 혼이 담긴 곳 설악산 대청봉 오색

올곧은 기상과 성품
그 일념으로 살아온
군민들은 한결 같은
믿음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설악산 대청봉
오색에 그토록 바라던
희망의 끈이 놓이기를
염원하고 또 염원한다.

그드높은 기상과 절개가
설악을 살리는 원동력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도록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양양의 혼이 담긴 곳
설악산 대청봉 오색

올곧은 기상과 성품
그 일념으로 살아온
군민들은 한결 같은
믿음으로 기대한다.

우리는 설악산 대청봉
오색에 그토록 바라던
희망의 끈이 놓이기를
염원하고 또 염원한다.

그드높은 기상과 절개가
설악을 살리는 원동력으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도록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사진 / 양양군청 기획감사실 최대영

오색케이블카 재추진 나선다

추진위 비상총회 열고 성명서 채택



우리군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부결에 따른 사업보완 작업에 속도감을 내며 재추진에 나서고 있는 설치추진위원회가 비상총회를 열고 성명서를 채택하는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오색케이블카설치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김현수·김관호·임용식)는 지난 2일 문화복지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비상총회를 열고 환경부의 시범지역 부결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상경투쟁을 통해 환경부를 항의방문하자는 강경론도 나왔으나, 우선 환경부가 케이블카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보완계획서를 받을 것이라는 입장인 만큼 환경부

장관을 만나 조속한 재선정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추진위는 이에 따라 조만간 방문단을 구성해 우리군이 추진해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조속한 재선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특히 환경부가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 환경부가 제시한 주봉과의 500m이격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모순점을 지적했다.

이창근 오색1리 이장은 “환경부가 오색케이블카의 체류 시간을 늘려 경제성을 높이라고 해놓고서는 주봉과의 직선 거리를 500m이격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관모능선 주변에 입지를 정한 현재의 상부정류장을 이격시키면 바

로 낭떠러지고 경관도 좋지 않아 경제성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추진위는 이날 김호열 미래전략과장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조속히 재선정이 되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추진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부결 결정은 또 한번 강원도민과 양양군민들의 가슴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었다”며 “조속히 재선정을 해야 하고 외부 환경에 흔들림 없는 정부의 뜻대 있는 결정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우리 양양군민들과 강원도민들은 강한 신념을 갖고 일관된 마음으로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고 천명했다.

우리군도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의 재추진에 속도감을 내고 있는 가운데 환경성과 경제성 제고를 위한 보완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의 미래전략과

오색케이블카담당 670-2530

후반기 의장에 김일수 의원

“민의를 천심으로”...부의장에 김택철 의원

제6대 우리군의회 후반기 의장에 재선의 김일수 의원이 선출됐다. 군의회는 지난 5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180회 임시회를 열어 김일수 의원을 후반기 의장에, 김택철 의원을 부의장에 선출했다.

이날 후반기 의장선거는 출석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해 김일수 의원이 7표로 만장일치로 당선됐으며, 부의장도 김택철 의원이 7표를 얻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군의회 후반기 의장선거는 의장선거로 인한 불협화음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회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의원들 간 내부조율을 통해 김일수 의장과 김택철 부의장으로 추대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일수 의장은 당선 후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중차대한 책무를 맡게 된 만큼 막



김일수 의장 김택철 부의장

중한 사명감을 갖고 민의를 천심으로 받들어 나가겠다”며 “민의를 전제로 한다면 언제든지 집행부와 소통에 나설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견제를 강화해 민의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현면 출신인 김 의장은 제6대 군의회 전반기 부의장을 지냈으며, 김택철 부의장은 양양읍 출신으로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바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오고 있다. 제6대 군의회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됐다.

▶문의 의회사무과
의사담당 670-2801

양양송이밸리 4일 개관 본격 운영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산림휴양 기대감

양양송이밸리자연휴양림이 지난 4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우리군은 양양송이의 생태환경을 활용해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송이밸리체험관을 완료하고 이날부터 홈페이지 예약을 통한 운영을 시작했다.(www.songivalley.co.kr)

양양송이밸리는 10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다락방이 있는 복층 구조의 8~9평 규모로 성수기 8만5천원, 비수기 6만원으로 세미나실은 5시간미만 이용시 10만원이다. 또 404㎡의 송이관은 송이의 생태현황 등에 대해 전시하고 있으며 영상실도 함께 구축돼 있어 빼어난 양양의 자연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양양송이가 자라는 생태환경을 그대로 갖추고 있어 쾌적한 산림 속에서 휴식이 가능해 최근 인터넷 예약이 몰리고 있다.

양양송이밸리는 주변에 전망대가 설치돼 양양시 내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으며, 그동안 송이축제 때 송이보물찾기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가 주변에서 진행되던 곳여서 산림치유도 가능하다는 평가다.

군은 송이밸리의 활성화를 위해 시설경영팀의 인원을 확충, 안전관리 및 체계적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각종 포털사이트를 통해 ‘양양송이밸리 자연휴양림’을 검색하면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하다.

▶문의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경영담당 670-2634



정상철 군수 현장체험

무더위속 환경미화원들과 쓰레기 수거



정상철 군수가 무더위 속에서 환경미화에 전념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노고를 직접 경험하는 현장 체험을 실시했다. 정 군수는 지난 5일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양양읍 환경미화원들과 시내 환경미화활동에 나서며 쓰레기 수거를 통한 현장점검을 했다.

이날 정상철 군수는 양양읍사무소를 출발, 양양읍시외버스터미널, 양양군민약국, 단양식당, 양양초등학교, 어시장, 시장골목 등을 돌며 생활쓰레기를 수거했다.

양양종합운동장 대협약 체결

지역건설업체 참여확대 위해 강원도개발공사와



양양종합운동장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군이 강원도개발공사와 대협약을 체결하고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6월 27일 강원도개발공사와 ‘양양종합운동장 건립사업’ 대협약을 체결하고 오는 2014년까지 양양읍 구교리 160번지 일원에 본부석 1,500석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우리군은 사업비 조달 및 비용부담, 인허가 제반업무 지원 등을 맡고 강원도개발공사는 공사의 발주 및 입찰 등 계약에 관한 사항과 공사감독·감리업무, 기성검사, 준공검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우리군이 종합운동장 추진과 관련, 강원도개발공사와 대협약을 체결한 이유는 업무분담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가 용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도비 등 아직까지 확보해야 할 예산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강원도개발공사와 파트너십으로 추진할 경우, 예산확보가 보다 수월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협약을 맺었다는 분석이다.

양양종합운동장은 총 9만 1,462㎡의 부지에 건축면적 3,715㎡(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국비 65억4,000만원, 도비 30억5,200만원, 군비 122억800만원 등 총사업비 218억원이 투입될 계획인 가운데 올해까지 41억원이 확보됐다.

오는 9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양양종합운동장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종합운동장이 없는 우리군의 체육인프라 확충에 도움이 기대되며 도민체전 등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도 44호선 주변지역의 개발도 촉진될 전망이다.

▶문의 문화관광과
체육진흥담당 670-2731

양양사이클경기장 랜드마크 기대

지난 6월 19일 준공식...사이클 묘미 선사



양양사이클경기장이 지난 6월 19일 손양면 학포리 양양국제공항 입구 현지에서 준공식을 갖고 제1회 KBS배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상철 군수와 구자열 대한사이클연맹 회장, 사이클 원로 등 관계자들과 주민 1천여명이 참석해 사이클경기장 준공을 축하했다.

국내 1등급 공인 벨로드롬경기장인 양양사이클경기장은 지난 2008년 국비 78억원, 도비

47억원, 군비 133억원 등 총 259억원이 투입돼 연면적 3,993㎡, 트랙규격 333.33m, 좌석 1,500개의 규모로 준공됐다.

이날 준공식에 참석한 관계자들과 주민들은 최첨단 공법으로 지어진 벨로드롬과 최신식 건물로 지어진 경기장을 둘러보며 양양사이클경기장이 국내 사이클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하기를 기원했다.

이어 열린 제1회 KBS배 양양 전국사이클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선수들이 벨로드롬 경

기장을 씩 없이 내달리며 자웅을 겨뤄 관람객들에게 사이클 경기의 묘미를 선사했으며, KBS에서 생중계돼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다.

양양사이클경기장이 준공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감에 따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국내외 사이클 거점 경기장으로 부각되며, 국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은 물론 양양군의 스포츠마케팅에도 획기적인 전환점이 기대되고 있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사이클경기장 조성공사에 노력한 관계자들의 감사패 전달에 이어 10년간 양양사이클경기장 조성사업에 헌신해온 이진호 전 양양군수에게 사이클 원로회에서 감사패를 전달했다.

▶문의 시설관리사업소
시설경영담당 670-2634

양양~중국 대련노선 운항 시작

지난 6월 22일 취항식...국제선 다변화 시도



양양~중국 대련노선이 지난 6월 22일 취항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갔다.

강원도는 이날 오후 4시 양양공항 국제선 출국장 2층에서 정상철 군수와 김남수 도 환경관광문화국장, 장성호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을권 강원도의회 부의장, 김양수 강원도의회 의원, 김재기 속초상공회의소 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취항식을 가졌다.

중국 대련노선은 내년 6월 21일까지 주 2회 화·목요일 총 150회 왕복 210편이 운항되며 비수기에는 118석, 성수기에는 178석 규모로 중국 남방항공 여객기가 투입된다.

이번 노선의 운항시간은 현지시각을 기준으로 오후 5시45분 양양공항을 출발해 오후 6시10분 대련공항에 도착하고, 오후 2시30분 대련공항을 출발, 오후 4시45분 양양공항에 도착한다.

이번에 운영에 들어간 대련노선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설악산을 비롯해 오죽헌, 춘천 남이섬 등 강원

도내 문화관광지를 둘러보는 패키지 상품으로 구성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울시는 강원도와 공동 마케팅사업의 일환으로 이 노선을 이용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서울투어에 나설 경우, 정동극장의 '미소' 공연을 연 말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어서 지자체간 교차관광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취항한 중국 대련노선은 그동안 단발성에 그치던 국제선 부정기성 전세기와 달리 정기성 전세기로 운항돼 향후 양양국제공항의 안정적인 국제선 운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도는 양양국제공항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공식 공항으로 지정 받아 관광 활성화의 창구역할을 해 내기 위해 중국 북경과 상해, 일본 오사카,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노선 개설을 협의하는 등 국제선 다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담당 670-2721

계약심사로 11억원 예산절감

우리군 재정운영 효율성 향상

우리군이 올 상반기 계약심사제를 통해 11억여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 1월 5일 '양양군 계약심사 업무규정'을 제정, 계약심사제를 실시한 결과 상반기 60건에 11억7,5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

올해 42건의 공사 심사결과 193억원의 심사요청금액 중 5.41%인 10억원이 절감됐으며, 용역사업은 13건에 1억원, 물품구입은 5건에 2,100만원 등의 예산 절감효과를 나타냈다.

우리군의 계약심사제 대상

은 종합공사는 2억원, 전문공사 1억원, 용역사업 3천만원 이상,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 중 1회 설계변경시 10%이상으로 설계 변경된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국·도비 보조사업은 공사 2억원~5억원, 전문공사 1억원~3억원, 용역사업 3천만원~5천만원에 대해 강원도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제외사업은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계약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군은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종 공사와 용역, 물품구입 시 사업 발주부서에 산출한 사업비 내역에 대해 정밀한 원가분석, 시장 가격조사, 창의적인 공법 적용 등을 통해 예산낭비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무회계과에 계약관리전담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군은 하반기에도 15건에 30억원의 예산심사 요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3억여원의 예산을 추가로 절감하면 올해는 총 14억원의 예산절감효과와 이에 따른 품질향상도 기대하고 있다.

▶문의 세무회계과
계약관리담당 670-2144

'양양연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우리군 연내 완료...연어산업화 효과 기대

우리군이 연내 '양양연어'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할 예정인 가운데 지난 6일 연어가공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원 사업에 나선다.

군은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올해 특허청 및 행자부의 2012년도 지역지식재산 경쟁력 제공사업 지원에 포함된 '양양연어'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2천5백만원을 투입해 특허청 강릉지식재산센터 및 강원도와 합동으로 '양양연어'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등록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내년에는 4천만원의 예산으로 '양양연어' 브랜드 공동개발 및 컨설팅 지원사업에도 나서는 등 양양연어를 테마로 한 다양한 사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양양연어'가 지리적표시 단체

표장에 등록되면 국·도비 지원을 통해 양양연어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데다 그동안 미진했던 연어산업화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연어특구지정 및 연어생태공원 조성, 연어가공산업 육성, 연어를 테마로 한 스토리텔링 등 '양양연어' 관련 산업화를 적극 추진해 양양송이와 함께 지역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문의 미래전략과
투자유치담당 670-2123

정상철 군수 행정대상

전국지역신문협회 주최...“지방자치 헌신”

정상철 군수가 (사)전국지역신문협회로부터 2012년 행정대상을 수상했다.

정 군수는 지난달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국지역신문협회 제9주년 기념식 및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행정대상을 받았다.

정상철 군수는 지난 2011년 4월 제29대 양양군수로 취임한 후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희망찬 양양건설'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농산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행정지원에 나

서는 등 지방자치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데 헌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원-스톱 민원처리, 공무원들을 명예이장제로 활용 등 위민행정을 펼쳐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성과를 올려 이번에 행정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낙산 익스트림 페스티벌’

마을 해변들 다양한 체험이벤트 풍성



올 여름 낙산해변을 비롯해 양양해변이 다양한 여름이벤트로 열기를 더한다.

낙산해변은 그동안의 침체를 딛고 피서객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7월27일부터 8월12일까지 ‘낙산 익스트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한여름 해변의 젊음을 발산하는 익스트림 스포츠체험을 비롯해 영화상영, 퍼포먼스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피서객들을 찾아간다.

하조대는 조개잡이 체험으로 가족단위 피서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설악해변은 해변기간 중 주말에 오징

어맨손잡이 체험 이벤트를 연다.

또 동호해변은 매일 2회 전통방식의 멸치후리기 체험으로 명성을 잇고 물치해변은 8월초 조개잡이 축제, 잔교해변은 8월1일 해변축제를 열어 조개줍기와 노래자랑 등 여름해변의 추억을 선사한다.

죽도해변은 8월3~5일까지 어린모래톱 축제를 열어 조개줍기, 오징어잡기 이벤트를 마련하고 인구해변도 같은 날 선상바다관광 및 배낚시 등으로 즐거움을 전한다.

원포해변은 7월31~8월8일까지 한여름축제를 개최해 맨손조개잡이체험 등 마을해변의 특성을 살린 체험이벤트와 피서객들의 발길을 잡을 예정이다.

올해 양양해변의 여름 이벤트는 낙산해변이 스틸 넘치는 익스트림 스포츠 체험으로 이색 볼거리를 전하는 등 특별함이 가득한 여름추억이 기다리고 있다.

▶문의 문화관광과
관광기획담당 670-2721



사진전문가 / 최대영의 우리고장 돋보기



기운이 올라가면서 서면 북평리와 용천리 복숭아 과수원에는 은 당도를 자랑하며 피서철 관광객들에게 인기만점이다. 용천리와 북평리는 복숭아 마을로 유명할 정도로 고품질 양종주며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올 여름 우리군을 찾으면 양양복-

빨갭게 익어가는 양양복숭아

연암 박지원과 양양 재조명

양양문화원, 역사·문화콘텐츠 개발

우리군과 문화원이 조선 실학의 거목인 연암 박지원의 양양부사 재직시절 업적을 재조명하는 심포지엄을 열고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문화원은 지난 6월 26일 문화복지회관에서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암 박지원의 역사문화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양언석 강원도립대 교수의 사회로 오영교 연세대 교수가 ‘연암 박지원의 생애와 사상’, 김동석 성균관대 교수의 ‘연암 박지원의 양양부사 활동과 작품세계’, 박수밀 한양대 교수가 ‘박지원의 목민관으로서의 면모와 생태정신’ 등 학계의 다양한 주제발표가 이뤄져 연암 박지원과 양양군과의 상관관계를 재조명했

다.

조선 후기의 주요 인물로 마지막 관직인 양양부사(1800~1801년)를 지낸 박 지원은 재직 시절 양양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산화하는 논리를 펴는 등 현대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주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 이번에 우리군과 문화원이 자연관광 활성화와 연계시켜 역사·문화콘텐츠로 승화시키기 위해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벽화로 생동감이 넘쳐나요”

양양미술협회, 양양고 담장에 벽화 그려



양양미술협회 회원들이 썰렁했던 길거리 담장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벽화그리기에 나서 화제다.

미술협회 양양지부(지부장 최낙민)는 지난달 22일 양양읍 서문리 양양고 담장 100m에 단원 김홍도의 서당을 비롯해 반

기문 UN사무총장, 김연아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벽화로 그려 넣었다.

특히 학교 분위기에 맞는 서당과 학생들의 이상인 인물들을 그려 넣어 면학분위기에 도움을 주고 있으며, 그동안 차가운 시멘트로 세워진 담장에 이채로운 벽화가 그려지면서 학교 주변의 환경도 훨씬 생동감이 넘쳐난다는 반응이다.

한 주민은 “학교 담장이 시멘트로 딱딱하고 차가운 이미지였는데 벽화가 그려지면서 학교 분위기도 좋아지고 아이들의 면학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좋다”고 말했다.

회원들은 무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학교분위기 개선을 위해 양양고 담장에 정성스럽게 벽화를 그려 넣으며 구슬땀을 흘렸다.

주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만든다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제84강

2012년 대한민국의 안보상황 공감

I. 우리 안보의식의 현주소는?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67년 풀리처상을 받은 듀렌트 부부는 ‘역사의 교훈’이라는 저서를 통해 역사가 기록된 3412년의 기간 중 전쟁이 없던 기간은 286년에 불과하다고 서술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전쟁 反전쟁’이라는 저서에서 유엔이 창설된 1945년부터 1990년까지 2340주, 45년 중 전쟁이 없던 기간은 3주에 불과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역사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평화와 우리가 이룬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는 상태인가? 2011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청소년 안보의식 조사결과를 보면, 우리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적’이 ‘북한’이라고 응답한 인원이 22.1%에 불과했으며,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자 우방인 ‘미국’을 ‘적’으로 인식하는 인원은 무려 19.9%나 되었다. 북한에 의해 자행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서도 “왜 북한을 자극하여 북한의 도발을 불렀느냐?”, “천안함의 침몰원인은 북괴군의 어뢰공격이 아니라 좌초이다.” 등등의

주장을 하면서 국가안보 문제를 정치 이슈화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이 이어지고,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의 군사력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된 나라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리의 평가가 불안정한 평화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II.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는?

무엇이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가? 2010년 국방백서는 우리의 적을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북한은 대규모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천안함 공격·연평도 포격과 같은 지속적인 무력도발 등을 통해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이 지속되는 한, 그 수행 주체인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북한은 군사력의 숫적 우위와 비대칭 전력을 확보하여 언제든지 도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서울 불바다’·‘특별행동 개시’ 등 수사적 위협과 함께 무력도발을 예고하고 있다. 북한정권의 습성화된 파렴치한 행동이다. 오늘날 북한의 현실은 ‘3대 세습 체제 구축’, ‘인권 유린’ 등의 측면에서 세계



여름 복숭아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다. 신선이 먹었다는 설화에 바탕을 둔 복숭아는 해풍과 토질이 뛰어난 우리군에서 더 높
상복숭아를 생산하며 특산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국도변에 내놓고 파는 복숭아 난전은 시골정취는 물론 인심까지 덩으로
송이의 진가를 맛볼 수 있다.

향토사학자 이재풍의 우리고장 탐방

遊戲謠 (유희요)

정겨운 우리 놀이 노랫말을 소개합니다.



마-26. 난다 긴다
(동작 홀리기 놀이)

난다 긴다
긴다 난다

난다 난다
새가 난다

긴다 긴다
쥐가 긴다

이런 방법으로 같은 동작을 여러 번 반복하기를 느리게, 빠르게를 여러차례 거듭하다가 흥미한 지경에 들었구나 할 때 어느 순간 갑작스레 소리와 동작이 헛갈리어 흔들린 경우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벌칙이 내려집니다. 이를테면 마당 한바퀴 돌고 오기, 코끼리 흉내 내기, 어떤 물건찾아오기 등 좀 힘든 과제를 주어 짚짚 매는 꼴을 보며 서로 웃기도 놀리기도 하여 한때를 즐겁게 하는 놀이였습니다.

이제는 여럿의 어울림보다는 나홀로 어떤 전자기기에 앉아 게임에 몰두하는 장면이 보편화 되었습니다. 이 웃이 없습니다. 고독합니다.

좀 불편, 불만이 있던 그때 그 장면 좀 짜증스러웠습니다. 지내놓고 보니 참된 사람의 마음을 알 듯 합니다.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성료



농업경영인양양군연합회(회장 김문종) 한마음대회가 지난달 26일 오전 11시 남대천 송이조각공원에서 고완주 부군수,

김일수 부의장, 손재형 농협 양양군지부장, 회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연합회는 이날 한마음대회를 통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농업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화합을 다졌다.

특히 이날 참가 농업인들은 모처럼 일손을 놓고 한 자리에 모여 배구와 줄다리기 등 체육행사를 가지며 우의를 돈독히 했다.

여성한마음대회 성황

오금옥씨 등 우수회원 표창

우리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양순자)가 주최한 2012 여성한마음대회가 지난달 28일 양양문화복지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올해 여성한마음대회에는 정상철 군수, 양순자 여성단체협의회회장, 박은주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회장, 회원 등 5백여명이 참가해 화합과 우의를 다지며 여성권의 증진과 지역 화합을 기원했다.

이날 한마음대회에서는 오금옥 농가주부 모임 양양군연합회원을 비롯해 우수회원들

에 대한 표창도 수여했다.



정다운 마을 개원 20주년 행사

1992년 개원 후 현재 110명 재활 중

중증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서면 정다운마을이 지난달 25일 개원 2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정다운마을 원생들은 이날 오전 서면 게이트볼장에서 정다운 마을합창단의 합창을 시작으로 다채로운 행사를 갖고

건강한 삶을 기원했다.

정다운 마을은 1992년 개원한 뒤 2007년 최신식 현대화 시설로 원생들의 복지증진에 힘쓰고 있으며, 현재 110명의 원생들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재활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에서 추진하는 2012년 녹색자금 지원사업에 선정돼 주변의 나대지 2,500㎡에 녹음수를 식재, 시설거주 장애인들을 위한 치료와 나눔의 녹색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악의 독재국가이다. 아사자가 급증하고 20여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으며, 공개처형이 일상화 되어있다. 한마디로 '인간'이기를 포기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다.

그럼에도 우리사회 내부에 김일성 일가의 독재를 위한 '주체사상'을 종교적 교의로 여기면서 대한민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들은 자주, 민주, 통일을 부르짖으면서 민주세력, 진보세력으로 가장하여 대한민국 정권타도(민주), 주한 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기(자주), 고려연방제 통일(통일)을 꾀하고 있다. 북한정권의 주장과 동일하다.

III. 통일한국을 그리며-?

6.25 전쟁 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이던 대한민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국가 중에서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룬

유일한 국가,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된 유일무이한 역사를 썼다. 우리보다 월등히 나은 조건에서 출발한 북한은 지금 세계 최빈국이면서 최악의 독재국가가 되었다. 남과 북에서 이루어진 지난 60여 년의 역사적 실험은 대한민국이 선택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올바른 방향이었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한반도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통일한국은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로의 통일이여야 한다.

세계의 유수한 학자와 연구소는 향후 10년 내 북한이 붕괴하고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 5~10년이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을 안정되게 관리하면서 대한민국의 통일과 번영을 이루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정문헌 국회의원 책걸상 전달

송포초교·한마음아동센터에

새누리당 정문헌 국회의원이 손양면 송포초교와 한마음아동센터에 국산목재로 제작된 책걸상을 전달했다.

이번 책걸상 전달은 산림조합중앙회가 ‘국산목재 학생용 책상·의자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은 정 의원이 직접 산림조합중앙회에 건의해 성사됐다.

국산목재의 학생용 책상·의자 보급사업은 매년 녹색자금 1억원을 지원 받아 숲가꾸기 부산물로 나오는 목재를 활용해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 등 40여곳에 지원되고 있다.

정문헌 의원은 “국산목재로 만든 책상과 의자가 자라나는 우리지역의 아이들에게 편안한 교육기자재로 잘 활용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지역사회의 근간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격려했다.

한편 정문헌 국회의원은 당선되기 전에도 양양 서면 상평초교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골학교의 국비지원 사업에 많은 힘을 보태기도 했다.

생활친화형 아이디어 공모

우리군, 테마형·생활공감 모집

우리군이 효율적이며 생활친화형 군정을 운영하기 위해 현재 시행하는 국민제안과 별도로 ‘테마형 공모’와 ‘생활공감 제안’을 모집한다.

군은 현재 추진 중인 제안공모제가 개인의 취향에 따라 제안분야를 선정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방안으로 진행돼 극히 개인적인 불편사항 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안이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시책사업과 관련한 당면사안 아이디어를 ‘테마형 공모’와 ‘생활공감 정책제안’으로 나눠 모집할 계획이다.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제안 공모를 받으며 ‘테마형 공모’는 ‘동서·동해고속도로 개

통에 따른 양양군 발전(대응방안)과 ‘양양군 대표축제(송이언어) 개선방안’에 대한 주제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생활공감 정책 제안’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정부 시책이나 제도 개선은 물론 생활속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제안’을 주제로 양양군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안을 받는다.

공모제안은 제안서 양식에 맞춰 자유형식으로 기술하며 필요할 경우 증빙자료 및 실증자료도 첨부 가능하고 제안완료 후 예비심사 및 1·2차 심사를 통해 대상, 금상, 은상, 동상과 함께 부상금도 수여된다.

▶문의 기획감사실
평가통계담당 670-2105

주요 관광지 불법광고물 정비

정비·단속반 가동 즉시 개선

우리군이 본격적인 피서철을 앞두고 주요관광지 및 도로변의 환경정비를 추진한다.

군은 쾌적하고 깨끗한 관광이미지 조성을 위해 관광지와 도로변에 산재한 불법광고물을 일제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도 7·44·56·59호선 및 주요 지방도로변, 19개 해변, 6개 마을관리휴양지 등에 불법으로 난립돼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입간판, 벽보, 전단 등 생활환경 저해 광고물을 일제히 정비한다.

이를 위해 경제도시과장을 총괄로 하는 7개반 15명을 정비·단속반으로 편성해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

단속반은 국도변 및 해변 일대 순찰활동을 강화해 집중적으로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하고 벽보·전단·현수막·입간판 등을 단속 즉시 제거하는 등 즉각적인 정비에 나서고 있다.

특히 읍·면은 주기적인 순찰활동을 실시해 현수막 등 즉시 철거대상 광고물 등은 바로 철거할 계획이다.

또 불법광고물 표시 광고주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지도·단속강화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무신고업자의 경우,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문의 경제도시과
경관디자인담당 670-2236

“정직한 가게로 손님맞이”

낙산상가들 신뢰회복에 올인

낙산지역이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신뢰회복을 통해 상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정직한 가게’ 현판식을 갖고 피서객 맞이에 나섰다.

우리군과 낙산숙박협회는 지난 6일 낙산모텔에서 정상철 군수와 김일수 의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직한 가게 현판식을 갖고 낙산지역의 이미지 제고에 올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속적인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낙산지역 상가들은 정직한 가게 확산을 통해 피서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전하고 관광활성화와 연계, 연중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 계획이다.

특히 낙산발전협의회를 통해 홍보 및 계도활동을 전개한 뒤 ‘정직한 가게’ 문패를 달아주기를 시작으로 정직과 신용의 낙산 지키기를 위한 ‘1일 낙산지킴이’도 활발하게 운영해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시작된 정직한 가게 현판식은 갈수록 관광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는 낙산지역을 스스로 되살리자는 상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작된 가운데, 낙산도립공원사업소도 이를 위한 뒷받침에 나서면서 낙산지역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문의 낙산도립공원사업소 관리담당 670-2427



아파트 전등 끄기 릴레이

9월26일까지 7개 아파트 대상

우리군이 올 여름 예상되는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우리 아파트 전등 끄기 릴레이’ 행사를 실시한다.

군은 초고유가시대 전력난 속에 에너지 의식의 정립이 필요하고 기후변화에 능동적·실질적 대응을 위해 지난 6월 20일부터 해오름(충용)아파트를 시작으로 ‘우리 아파트 전등 끄기 릴레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아파트 등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공동주택의 소등행사 캠페인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유지하며 탄소포인트제 가입 등으로 전 국민의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내 7개 아파트를 대상으로 7월11

일 하이팰리스, 7월25일 썬라이즈빌, 8월8일은 주공아파트, 8월22일 심미아파트, 9월12일 삼호아파트, 9월26일 명지 푸르미아파트에서 일제히 소등을 실시한다.

오는 9월26일까지 3개월간 둘째, 넷째 주 수요일 오전 8시부터 8시15분까지 15분간 소등을 실시한 뒤 소등행사가 끝난 아파트도 추진기간 동안은 관리사무소에서 자체추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아파트 전등 끄기 릴레이 행사를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확산시켜 올 여름 전력난에 사전 대처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문의 경제도시과 경제진흥담당 670-2707

올해도 한우상환 릴레이 이어져

농업기술센터, 총 22명에게 전달

우리군농업기술센터의 한우상환 릴레이가 올해도 진행됐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2일 모범 영농 4-H회원인 강현면 중북리 전승택씨가 상환한 암송아지 1마리를 서면 갈천리 박재흥씨에게 전달했다.

한우상환 릴레이는 1983년 양양JC와 서울강서JC가 자매결연을 체결하면서 강서JC가 당시 5개월 된 어린 암소 5두를 양양관내 농가에 지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

5마리의 어린 암소는 당시 4-H 회원 5명에게 분양됐고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시기인 5년째가 되는 해에 자신이 지원 받았던 어린 암소를 다른 회원에게 릴레이식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올해까지 어린 암소 상환사업으로 관내 총 22명의 회원들에게 암소가 전달돼 영농4-H 회원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어려움을 겪고 있

는 한우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날 한우를 지원받은 박재흥씨는 “어려운 상황에서 어린 암소를 지원받게 돼 감사하고 이번에 분양받은 송아지를 우량한우로 잘 키워 내년에 다른 회원에게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이처럼 한우 상환방식의 지원사업이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면서 매년 상환릴레이를 통해 농가들의 사기진작에 보탬을 주고 있다.



피서철 청소인력 추가 운영

우리군, 바다·계곡 등에 13명 배치

우리군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주요 해변의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기간제 청소인력을 운영한다.

군은 피서철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3천4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간제 청소인력을 바다와 계곡 등 주요 피서지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낙산해변을 관리하는 낙산도립공원 2명을 비롯해

하조대와 계곡휴양지가 많은 현 북면 4명 등 총 13명을 추가로 투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이들 기간제 청소인력은 오는 8월31일까지 2개월간 낙산도립공원과 면사무소에 채용돼 생활쓰레기 및 피서지 쓰레기 수거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올해도 사상 최대 피서객이 우리지역을 찾을 것으로 보여 추가 청소인력 배치를 통해 생활

쓰레기 및 피서지 쓰레기를 원활히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남대천 하천변과 하구, 해안 백사장 등의 쓰레기 처리를 위해 지난 6월부터 12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해 쓰레기를 상시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청소인력을 추가로 가동하는 등 피서철 관광미관 정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문의 환경관리과 생활환경담당 670-2183

박용규 · 정용화 · 김용해 · 정호영씨

명예·정년퇴임 공로패

우리군은 지난 3일자로 박용규 산림농지와 농지관리담당 등 4명에 대해 명예·정년퇴직 공로패를 수여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용규 담당은 34년간 농업직으로 근무하며 농정업무 발전에 많은 역할을 했으며, 정용화씨(기능 6급 운전직)는 35년간, 김용해씨(기능 7급 운전직)는 24년간,



정호영씨(청원경찰)는 25년간 재직한 뒤 이날 정년퇴직했다. 정상철 군수는 이날 명예 및 정

년퇴직한 4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실과장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했다.

폭염 특보 발령 시 국민행동 요령

7월, 여름엔 바다가 부릅니다. 깊고 푸른 바다, 눈부신 햇빛에 반사되는 하얀 파도, 넓은 백사장... 해수욕장들이 하나, 둘 개장 하면서 여름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립니다.

여름은 답답한 도시에서 벗어나 짜릿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지만 무더운 날씨는 짜증과 불쾌지수를 상승시키기도 합니다.

기상청에서는 올해 7월 하순부터 8월 상순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분포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처럼 여름철 폭염이 예상될 때는 기상상황을 매일 주의 깊게 체크해야 합니다. 기상청은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때 폭염주의보를 발표하며, 일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때 폭염경보를 발표합니다.

폭염 특보가 발표 되었을 때 국민행동요령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 한낮의 뜨거운 햇볕은 피해야 합니다.
 - 온도가 높은 한낮에는 되도록 천천히 걷고 격렬한 운동은 삼갑시다.
 - 노약자는 야외활동을 삼가고 시원한 장소를 찾아 더위를 피합시다.
 - 야외 근무자는 시원한 장소에서 평소보다 자주 휴식을 취합시다.
- 2) 식사는 균형 있게, 물은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 3) 위생적인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합시다.
 - 손발을 깨끗이 하고 손톱은 짧게 깎읍시다.
 - 음식은 오래 보관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상한 음식은 버립시다.
- 4) 올바른 냉방기기 사용법을 숙지합시다.
 - 실내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합시다.(건강 실내 냉방 온 도는 26~28℃)
 - 한 시간에 한번 씩 꼭 10분간 환기하고, 2주에 한번은 필터를 청소합시다.
 -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밤새 켜두는 것은 위험하므로 집안을 미리 시원하게 하고 잠들기 전에 끄거나 일정시간 가동 후 꺼지도록 예약합시다.
 - 에어컨 가동 중에는 창문을 모두 닫고 커튼이나 블라인더로 직사광선을 차단하면 냉방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 5) 동료, 이웃의 건강에 관심을 가집시다.
 - 주변에 혼자 생활하는 노약자, 장애인, 환자 등이 있으면 관심을 갖고 주거환경 과 건강상태를 보살피도록 합시다.
 - 야외 현장이나 고온 작업장에서는 동료 간에 몸 상태에 서로 살펴주고 필요시 도움을 줍시다.
 -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나 1339(응급의료정보센터)로 연락하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를 서늘한 곳에 옮긴 후 체온을 내리는 조치를 취합시다.

“여름철 폭염특보 행동요령을 통해 무더위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향토음식 지도자 44명 배출

떡·향토음식·전통주 개발 보급 기대



우리군농업기술센터가 지역 특산물의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실시한 녹색생활지도자 양성과정의 수료식을 갖고 녹색생활지도자 44명을 배출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4월 과정별로 각 15회씩 실시한 녹색생활지도자 양성과정의 수료식을 갖고 녹색생활지도자 44명을 배출했다.

이번에 양성된 녹색생활지도자는 향토 떡 과정 14명, 향토음식과정 13명, 전통주 과정 17명으로 그동안 과정별로 배우고 익힌 요리법을 수록한 책자를 단행본으로 제작 발간, 일반 주민들에게도 배포해 향토음식과 녹색식생활문화 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녹색식생활 지도자 양성과정은 관내에 거주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지역 특산물과 생활 주변의 제철 재료로 토속적인 방법에 따라 음식을 요리하는 과정을 교육했다.

특히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떡은 기초지식 습득과 함께 가정에서 손쉽게 만들어 볼 수 있는 다양한 떡을 실습하는 ‘향토 떡’ 과정,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이용한 전통음식을 배워보는 ‘향토음식’ 과정, 밀술 빚기, 덧술 빚기, 누룩 제조 등 전통주 만드는 방법을 체험하는 ‘전통주’ 과정 등 3개 과정이 인기를 끌었다.

▶문의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담당 670-2338

- 중고자동차 구매시 소비자 행동요령 -

1. 개인간의 거래인 당사자 거래보다는 가급적 매매업자 거래를 통해 구매한다.
2. 인터넷상에 올려진 차량정보를 꼼꼼히 확인한다.
3. 중고자동차 가격 시세를 사전에 파악한다.
4.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와 차량등록원부를 반드시 살펴본다.
5. 매매업체 방문시 차량 및 매매업체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한다.
6. 매입 차량은 맑은 날, 평지에서 상태를 정확히 살펴본다
7. 시운전을 반드시 하도록 한다.
8. 구입예정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교부 받는다.
9.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적은 차는 주행거리 실제 운행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10. 계약전 차량등록원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세금문제와 정기검사 시기도 확인한다.

속초경찰 알림마당

허위·장난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경찰출동으로 소중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112는 긴급 범죄신고

허위·장난신고를 절대 하지 맙시다

경찰관련 민원은 1566-0112 불법주차·생활소음과 같은 타 정부기관 민원은 110을 이용해 주세요

속 초 경 찰 서 장

제2농공단지 8월 착공

친환경 업체 입주...고용창출 기대

우리군의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지난달 지정 고시됨에 따라 8월부터 착공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추진에 나선다.

군은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해온 제2그린농공단지 조성사업이 기본계획수립 및 문화재발굴조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실시설계 등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돼 지난 5월25일 강원도 지정 승인을 받는데 이어 지난 6월 22일 지정 고시했다.

이에 따라 양양읍 포월리 산40번지 일원 10만5,497㎡의 부지에 총사업비 88억3,500만원을 들여 12블록을 조성하고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등 굴뚝 없는 친환경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식료품 제조업의 경우에는 도축·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수산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제조업 등 많은 폐수가 방류되는 품목은 입주에

서 제외된다.

군은 그동안 12회에 걸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포월리 주민들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사유지 47필지 9만4,733㎡중 85%인 42필지 7만9,966㎡를 매입했으며, 편입 토지내 국·공유재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제2그린농공단지가 조성되면 현재 100% 입주가 완료된 포월농공단지의 포화상태를 해소하고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2015년 동서고속도로 개통에 대비해 친환경 업체의 입주에 따른 물류거점지역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군은 현재 폐수처리시설 협의를 위해 환경부 및 원주지방환경청 등을 방문, 마ური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8월중 착공할 계획이다.

▶문의 경제도시과 기업지원담당 670-2124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 지원센터』개소 안내

□ 센터개요

- 명 칭 :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 지원센터 (강원도 비상기획과)
- 소 재 지 : 춘천시 중앙로2가 11 / 신한은행 중앙로지점 3층
- 센터구성 : 5명 근무 (공무원, 취업전문 컨설턴트 등)
- 주요업무 : 구직희망자 모집 및 취업알선, 창업상담, 귀농·귀촌 지원 등
- 개 소 일 : 2012. 7. 20(금) / 개소식 예정

□ 지원대상

- 5년 이상 군복무자중 강원도민이거나 전입을 희망하는 제대군인
- 5년 이상 군복무자중 강원도 전입을 희망하는 전역예정군인
- ※ 전역기간에는 상관이 없으며, 5년 이상 현역복무한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은 모두 해당

□ 지원분야 (※8.1~8.20일 모집예정)

분 야	모집인원	지 원 내 용
맞춤형 취업지원	100명	직무교육, 1:1 맞춤형 취업알선
취업강화 기술교육	20명	전문 자격증 취득교육 및 취업알선
창업지원 & 컨설팅	20명	창업교육 및 창업자금 지원, 컨설팅
귀농·귀촌 교육	30명	이론교육 및 작물재배실습, 현장체험

자치행정국 비상기획과 ☎ 249-3024

최대 50% 국가가 지원합니다

고용보험 · 국민연금 지금 가입하세요



소규모 사업장과 저소득 근로자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사회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지원해 드립니다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인 근로자 → 보험료 1/2지원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근로자 → 보험료 1/3지원

고용보험으로 실업걱정 덜고,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하세요

고용보험 · 근로자 : 실업급여, 자기계발비, 육아휴직급여 등 지원

· 사업주 : 고용촉진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등 고용부에서 정한 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원금

국민연금 · 노후를 위한 종합보험, 국민연금

· 매달 월급처럼 평생받는 노령연금

· 가입 중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연금

· 가입자,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

사장님~더 든든한 내일을 위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온라인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신청사항 입력

서 면 : 제출서류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 ·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제출서류 : [신규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성립신고서)

[기존사업장]보험료지원신청서

신청문의

검색창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을 검색하세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www.kcomwel.or.kr

국민연금공단 1355(국번없이) www.nps.or.kr

고용노동부고용센터 1350(국번없이) www.ei.go.kr

알아두면 유익한 7월1일 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

7개 질병군의 포괄수가제가 병의원급으로 확대 적용 됩니다.

○ 질병군별 포괄수가제란 병·의원에 입원할 경우 퇴원할 때까지의 모든 진료를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불하는 제도

※ 7개 질병군 : (안과) 백내장수술, (이비인후과) 편도수술, (일반외과) 치질수술, 탈장수술, 맹장수술, (산부인과) 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 제도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넓어져 본인부담금이 감소하게 되고, 진료비의 예측이 가능하며 계산도 간편해집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완전틀니가 보험급여 됩니다.

○ 상악 또는 하악 완전 무치악 환자의 레진상 완전틀니(7년 1회)

※ 금속(gold, titanium 등)을 사용한 경우는 급여 제외

- 총액의 50%를 본인이 부담하며, 3개월 동안 6회까지 무상보상 실시(진찰료 산정)

※ 예) 의원급 진료시 기존 진료비 975,000원 중 487,500원만 본인부담

- 완전틀니 제작 전 필요시 1회 임시틀니 급여(50%), 침상 등 필수 수리비용 지원(10월예정)

- 급여 절차 및 방법 : 병·의원 직접 등록 또는 공단 지사 신청 가능

다태아 임신부의 임신 · 출산진료비 지원이 7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종전 임신 1회당 지원액 50만원에서 다태아 임신부는 70만원으로 확대

○ 접수 방법 : "건강보험 임신 · 출산진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제출

○ '12.4.1일 이전 신청자는 지원금액이 40만원이므로 추가 20만원하여 60만원,

'12.4.1일 이후 신청자는 지원금액이 50만원이므로 추가 20만원하여 70만원

국민건강보험 속초지사 ☎ 1577-1000

정부민원 110으로 문의하세요

<110상담내용>

- ▶ 일반민원상담 : 전국관공서 안내, 주민등록, 병무, 교육 등 모든 행정사무
- ▶ 사회안정명 상담 : 일자리안내, 기초생활수급, 사회복지, 영유아보육비, 채무상담 등
- ▶ 생계침해신고 상담 : 불법 사금융, 임금체불, 취업사기, 교통불편 신고 등

<110서비스안내>

▶ 화상수화통역서비스

· '12년 6월14일 처음 시작한 화상수화통역서비스는 110콜센터의 수화통역사가 관공서를 방문한 민원인(농아인)과 담당공무원에게 웹카메라가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통역을 해드립니다.

▶ 수화상담 서비스

· 씨톡(국번없이 110)을 이용하거나 웹카메라가 설치된 컴퓨터로 110 콜센터에 접속하시면 전문 수화상담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

▶ 스마트 110 서비스

· 휴대전화로 110 모바일 홈페이지(m.110.go.kr)에 접속하시면 문자상담, 예약상담이 가능합니다.

▶ 외국어상담 서비스

· 영어, 일어, 베트남어 등 20여개 언어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 ☎ 02-360-2889

법정계량단위 사용 안내문(넓이단위)

○ 정부에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법정계량 단위를 사용하도록 『계량에 관한 법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법정계량단위: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계량단위로 m(길이), m²(넓이), kg(무게), L(부피)와 같은 단위

○ “평(坪)”이나 “평(坪)”과 유사한 비법정 계량 단위를 상거래나 광고에 사용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2010.6.1. 부터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자에게는 사·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20만원, 3차 이상 위반 50만원)

○ “평”, “평형” 이외에 “형”, “py” 등의 단위도 사용할 수 없으며, 제곱미터(m²)와 “평”, “형” 단위를 혼용하여 사용하여도 단속대상입니다.

* 예) 전용 85 m²(구33평형), 109 m²(33형), 109 m²(33py), 전용 85 m²(33)

○ 아파트·오피스텔 등 분양광고, 토지·건물의 매매·임대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신문광고, 전단지광고, 플래카드광고, 인터넷광고 등의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m²)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면적의 단위는 m²를 사용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 합니다!

MKE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 02-509-7230~33

KASO 한국계량측정협회
☎ 02-3489-1341~44